청년의 우울 변화 및 영향 요인: 잠재성장모형 접근

이지훈·백예슬·이재림
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

연구목적

-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불안정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청년의 우울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임
- 청년 시기는 다양한 생애사건을 이행하면서 삶의 맥락이 변화하는 시기로, 우울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 역시 변화할 수 있음
-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의 우울 초기값과 변화율은 상이할 수 있음
- 연구의 목적: 청년의 우울 수준의 종단적 양상을 살펴보고,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함

[연구문제 1] 청년의 우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?
[연구문제 2] 청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우울의 초기값 및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?

연구방법

연구자료

-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(2017년)~16차년도(2021) 자료
- 12차년도(2017년)에 만 19세부터 34세(청년기본법)에 해당하면서, 총 5회의 자료에서 우울 점수에 결측값 없이 3회 이상 응답한 사람
- 12차년도: 1,325명 / 13차년도: 1,311명 / 14차년도: 1,306명 / 15차년도: 1,193명 / 16차년도: 1,147명

측정도구

- 우울: CESD-11 척도(1-4점)
- 사회인구학적 특성: 성별(1 = 여성), 연령, 교육수준, 취업 여부(1 = 취업), 저소득가구 여부(1 = 저소득가구)

분석방법: 잠재성장모형(Mplus 활용)

연구결과

1. 우울의 변화 형태 분석: 일차함수 모형

- 일차함수모형의 적합도
 $x^2(10) = 43.428 (p < .001)$, TLI = .963, CFI = .963, RMSEA = .050, SRMR = .029
- 우울 초기치(12차년도)의 평균: 1.207점($SD = .008$)
우울 초기치(12차년도)의 분산: 0.053점($SD = .004$)
→ 초기 우울 수준에 개인차가 존재
- 우울 일차변화율의 평균: 0.009점($p < .01$)
우울 일차변화율의 분산: 0.004점($p < .001$)
→ 12차년도 이후 청년의 우울 수준은 매년 0.009점씩 증가
→ 우울 수준의 변화율에도 개인차가 존재
-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: -0.007
→ 초기 우울 수준이 높은 청년이 낮은 청년보다 우울의 변화율이 완만함

표 1. 청년의 우울 변화 추정치

모수		추정치	표준오차
초기치	평균	1.207***	.008
	분산	0.053***	.004
일차변화율	평균	0.009**	.003
	분산	0.004***	.001
초기치-일차변화율 공분산		-0.007***	.001

** $p < .01$. *** $p < .001$.

2. 청년의 우울 초기치 및 변화율의 영향요인 분석

- 모델 적합도
 $x^2(25) = 54.909 (p < .001)$, TLI = .959, CFI = .971, RMSEA = .030, SRMR = .024
-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: 성별, 저소득가구 여부
→ 남성보다 여성일 때($\beta = .117, p < .001$),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일 때($\beta = .170, p < .001$) 우울의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일차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: 교육수준
→ 초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변화율이 작았음 ($\beta = -.019, p < .001$)
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우울 수준이 더디게 증가하여 교육수준에 따라 청년의 우울 수준의 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

표 2. 청년의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

영향요인	초기치		일차변화율			
	B	(SD)	β	B	(SD)	β
성별(1 = 여성)	.084***	(.017)	.177	.005	(.006)	.042
연령	.002	(.002)	.035	.001	(.001)	.054
교육수준	-.027	(.016)	-.067	-.019**	(.006)	-.177
취업 여부(1 = 취업)	.003	(.019)	.005	-.005	(.007)	-.044
저소득가구 여부(1 = 저소득)	.137***	(.030)	.170	.002	(.011)	.010

** $p < .01$. *** $p < .001$.

논의 및 결론

- 청년의 우울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→ 과열된 경쟁에 노출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등으로 악화되는 청년의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및 주거 정책 외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청년의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→ 청년의 우울 수준을 감소하기 위해 청년 전체에 대한 동일한 접근을 지양하고, 우울의 변화 양상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
- 청년 중 남성보다 여성일 때,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일 때 우울의 초기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→ 성별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우울 수준이 덜 가파르게 증가 → 교육수준이 우울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함